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미국의 '중간선거'란 무엇인가요?

미국 대통령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신임투표

지난 7일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펼쳐져 그 전후로 연일 언론이 선거전망과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왜 중간이란 표현을 쓰나?

미국의 큰 선거는 2년마다 있습니다. '중간(midterm)'이라는 표현 때문에 선거의 비중이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상원(Senate),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주지사를 뽑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4년)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이란 표현을 쓸 뿐입니다. 물론 '중간'이라는 용어와 대비되어 쓸 수 있는 기말(final)선거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 있으면 그냥 '선거'로 표현하고 대통령선거에 초점을 두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라는 형식으로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 2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매 짝수 해의 11월 첫째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2 몇년마다 누구를 뽑나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전체 435명과 임기 6년인 상원의원(전체 100명)의 3분의 1인 33~34명을 선출합니다. 주지사 선거의 경우 모두 50개의 주 중에서 34개 주는 4년 임기의 주지사를 중간선거 기간 중 선출하고, 버몬트와 뉴햄프셔는 주 지사임기가 2년인 관계로 중간선거와 대통령 선거시 매년 선거합니다. 따라서 중간선거 기간에는 모두 36명의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상원의 경우 각 주별로 2명씩 선출해서 정원이 100이지만 하원은 인구 50만명 당 의원 1명씩으로 선출해 435명입니다. 물론 인구 50만이 안 되는 주에도 1명의 하원의원이 배정됩니다. 435명은 지난 1911년에 확정됐는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해 조정합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은 주는 하원의원의 수가 줄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난 주는 하원의원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미국의 선거 순환구조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2004년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 3분의1, 주지사 16명, 대통령 ▲2006년(중간선거)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 3분의1, 주지사 36명 ▲2008년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 3분의1, 주지사 16명, 대통령 ▲2010년(중간선거)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 3분의1, 주지사 36명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3 중간선거가 갖는 의미는

임기 2년을 지낸 현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6년 동안 계속 중용을 하다가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질한 것도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7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자 환호하고 있다.

과거 2년간 국정 평가...차기 대선 판도 가늠자

하원 435명, 상원 3분의 1, 주지사 36명 선출

이런 이유입니다. 중간선거는 또 2년 후 대선의 판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4 올 중간선거 결과는

지난 7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경쟁당인 공화당을 이기고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 의회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435석 중 232석을 확보하고 전체 100명의 3분의 1인 33명을 새로 뽑는 상원에서도 기존 45석에 6석을 추가, 51석으로 공화당을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12년간 계속됐던 공화당의 의회 지배는 막을 내리고 민주당은 2008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에 선출한 36개의 주지사 중 28개주를 차지하는 등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5 이번 선거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일단 미국의 정치메카니즘상 양당의 견해차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중요성은 그동안 미국 선거가 전통적으로 국내문제가 쟁점이 됐던데 비해 이번에는 이라크전과 북핵사태라는 중대한 외생변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전까지 미국 행정부는 2000년도 대선으로 집권한 공화당이 끌고 왔었는데 전통적인 보수주의가 아닌 이른바 신보수주의(네

오른)가 득세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및 한반도 및 이란에서 여러 가지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바로 이 네오콘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있어 북미 양자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지금보다 온건한 노선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자유무역역량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환관과 노동 등에 있어 시장 개방압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미국의 정당은 민주·공화 뿐인가

아닙니다. 공화당, 민주당, 녹색당, 공산당 등 다양한 이름의 당이 많습니다. 매년 생겼다가 사라지는 당도 꽤 됩니다. 많았을 때는 25개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좌파 성향인 민주당과 중도우파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만이 대통령을 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정치를 양당정치라고 할 뿐입니다.



하이 Hi Teen 공부합시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선거로 짝수해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치러진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4년 마다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상 간접선거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국민 직접선거의 특징을 지닌다. 유권자들은 선거년 2월에서 6월까지 예비선거나 코커스를 통해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대의원들은 7~8월 열리는 전당 대회에 참석,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후보 지명전이 끝나면 국민들은 11월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다. 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① 프라이머리(Primary)와 코커스(Caucas)

각 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대의원이다. 이 대의원 선출 방법은 예비선거(프라이머리)와 당원 대회(코커스)가 있다. 예비선거에서는 대의원의 75%, 코커스에서 나머지 25%가 선출된다. 프라이머리는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해 전당 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는 것이고, 코커스는 당원이나 당원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월에서 6월까지 치러진다.

형식상-간접선거, 내용상-직접선거 선거인단 538명중 과반 얻으면 당선

3월 첫째 화요일이 대체를 1차로 평가받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로 통한다. 이날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의 10여개 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러져 후보지명을 따내는 데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의 절반 정도가 이날 결정된다.

② 양당의 전당 대회 이 대의원들은 7~8월 열리는 전당 대회에 참석,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당대회는 관례로 양당이 7월, 여당이 8월에 여는 경우가 많다.

당대회에서는 대의원의 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그 당의 대통령후보가 된다. 전당대회 이전에 후보가 결정되므로 전당 대회는 그 동안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③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7~8월 각 당의 후보 지명전이 끝나면 대선 후보들은 11월 선거까지 선거전을 치른다. 이 때 전 국민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다. 각 당은 미리 각주마다 대통령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해 놓고,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국민이 투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미국 상·하원을 합한 수인 535명에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해 538명으로 구성된다. 각 당의 총득표 수가 한 표라도 많은 쪽의 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 각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을 분배하는 메인과 네브라스카 2개 주를 뺀 모든 주에서 선거인단을 승자에게 몰아주는 '승자독식제(Winner-take-all)' 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선거인단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당선된다.

④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12월의 둘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실시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각주의 주도에 모여 자신이 소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된다. 물론 선거인단에 포함된 개개인이 최종 투표에서, 해당 지역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선거인단 총선거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따라서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제주도 웰빙 패키지 여행
₩149,000~

광주·제주 불꽃축제 2박 3일 정기관광 숙박, 식사, 관광버스, 보험 포함
매주 월, 화 2명 이상 출발

필요일출발 1인 ₩139,000

리틀투어클럽
1538-8680 / www.223-8803

TOEIC 만점의 꿈!
'동아외국어'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TOEIC 만점의 꿈!
'동아외국어'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토익
해커스 토익

062-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